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7-1

역시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라고 말해야 될는지요.

12 월 25 일(주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마친 후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강연인 주일 오후 요코하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 허리는 할아버지처럼 완전히 구부러져있었습니다. 저는 곧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서 의자에 앉거나 서거나 하면서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진재해의 해에 최후의 강연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福島)와 도쿄(東京)간의 장거리를 차로 왕복할 때마다 허리가 아플 터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연내의 강연스케줄 마지막 날에 허리가 펴지지 않게 된 것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 덧붙인다면 강연할 교회 성도님 중에 정형외과 의사가 있어서 마치 저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를 간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진 재해이후로 처음 맞이한 연말은 자식과 손자를 팔벌려 맞이할 집을 잃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쓸쓸하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인 저희가 반대로 딸 집을 찾아가 여관이나 아파트를 전전하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내년도 내후년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암담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떠돌이 생활이 계속되겠는지요.

물론 제 자식들도 돌아갈 본가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겠지요. 자녀들이 매년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와 재회하는 둘도없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지진재해 후에 혼잡함 속에서 평상시에는 듣기 힘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대해 이전에 글로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주위에서도 지진 재해전에는 순조롭지 못했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심각한 사태를 당해서 서로 도우며 피신하는 중에 어느새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든지 피난처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등의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일전의 텔레비전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한 여관의 여주인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높은 지대에 있었던 그녀는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곳에서 뛰어내려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하라고 외치며 위급함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그녀 자신은 해일에 휘말려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지진재해 때의 기적적인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연 그 때 그녀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목숨의 은인인 그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이 세상으로 뛰어내려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돌연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보니 지금까지 우리들이 더듬어온 궤적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것이었습니다. 도중에 우리들 조차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대본인가” 고 몇번이나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3 월 11 일 돌연히 습격해 온 거대지진으로 시작된 어마어마한 츠나미(津波), 여기에 또 다시 몰아친 원전사고와 위기일발의 도피행, 그로부터 끝없이 늘어지는 피난생활이 계속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난하며 쫓기며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해 오다보니 어느새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들은 후쿠시마현(福島縣)에 되돌아와서 아파트와 새성전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전말은 도대체 누구의 각본과 캐스팅이었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무대에 올려진 우리들은 막이 오를 때마다 전전긍긍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와중을 헤쳐나온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이 해가 인생최대의 격진의 해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1 년 전에 우리들이 이러한 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는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동경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안고 새해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예년과는 전혀 다른 특이한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 좋았던 것은 걱정하고 있었던 저희집 애견과 재회하여 잠시동안이나마 설날을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의 귀성이었습니다만 제게도, 확인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애견 파피에게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걱정하던 탯인지 13 세의 늙은 애견이 많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못해준 것과 앞으로도 못해줄 것을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 이상으로 안아주고 귀여워해주며 맞아주었습니다.

(2011 년 12 월 연말에)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7-2

아무리 해도 글을 단숨에 써내려갈 기력과 시간이 없어 허둥대다 눈깜짝할 사이에 새해가 밝아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생각 탓인지 머리가 더욱 희끗해 진 것 같습니다.

아무 것도 정리되지 않은 작년을 질질 끌며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예년과 다른,,, 한발 앞으로 내디뎌 버틸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월초하루 예배는 이제부터 넘어야 할 힘든 산들이 많으니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활짝 펴고 강하게 날아 오르자는 메시지를 전하려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된 3년 전에 건축한 새교회의 정경이 메시지를 한창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지뢰를 밟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삼시간에 눈물이 쏟아져 앞을 가리며 제 몸의 일부인 눈임에도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고보니 지진 재해 이후 눈물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뒤돌아보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단호히 생각을 정리해서 끊을 것은 끊고 전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 힘있게 전하려한 메시지였는데, 제 자신이 점점 과거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심스럽게도 성도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저를 통째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 되었습니다.

새해부터 이래서야 허참 장래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편없는 개막이 되어버렸고 제 자신 속에 잠재하는 눈물의 지뢰밭을 뜻밖에 자각하게 된 연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어느 정도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처와 눈물을 유발하는 슬픔이 잠복하고 있는 지를 알 수가 없어서 좀 불안합니다.

지금은 환상이 되어버린 고향 땅 새교회에서 주일 아침 평온함에 쌓여 2층 목사실에서 계단을 내려와서는 인사를 나누며 예배당을 향하는 정경을 결코 설교중에 상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 마음 속에 밟아서 안되는 지뢰 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출범한 것은 좋았는데 설마 이렇게 빨리 눈물바다로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빠져 가라앉거나 하는 일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왠지 모르게 올해도 격동의 1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 년 1 월 신년

사토 아키라(佐藤彰)